

# 자발적 탄소시장 글로벌 동향 및 국내 활성화 방안 논의

일시: 2023년 03월 08일

주최/주관: 기후변화센터, 대한상공회의소

- | **기조연설** Carbon Markets: Now, Next Year and to Net Zero  
휴 살웨이 골드 스탠다드 마켓 총괄
- | **발제1** 싱가포르 기후변화 대응책 및 탄소시장 활용 방안  
싱가포르 기후변화 대응책 및 탄소시장 활용 방안
- | **발제2** 일본 탄소 시장 현황 공유 : JCM, GX-League, J-Credit을 중심으로  
켄타로 타카하시 일본 글로벌 환경 전략 연구소 부국장
- | **토론** 박호정 교수, 고려대 (좌장)  
키셔 라한사 Global Carbon Council 최고운영책임자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원장  
오덕교 한국ESG 기준원 선임위원  
신용녀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기술임원  
이용권 산림청 과장  
이동혁 하나증권 실장

# Executive Summary

국가기본계획안의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을 분석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있어 국가기본계획(안)의 충분성과 실효성을 평가하는 행사

## key takeaway 1

### 자발적 탄소 시장의 글로벌 현황

- 휴 살웨이 골드 스탠다드 마켓 총괄은 자발적 탄소 시장을 세 가지 관점에서 소개함. 자발적 탄소 시장은 전환 단계에 있음. 카본 크레딧은 무형 자산으로 리포팅이 중요함. 탄소 시장은 자발적 시장에서 의무적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음
- 베네딕트 치아 싱가포르 국무총리실 국가기후변화전략그룹 국장은 싱가포르의 탄소시장에 대해 설명함. 탄소 시장은 자발적 시장과 의무 시장의 경계에 있으며, 싱가포르는 자발적 탄소 배출의 중앙화를 지원해 표준을 개발 하고 이니셔티브 참여 및 협약을 체결함
- 켄타로 타카하시 일본 글로벌 환경 전략 연구소 부국장은 일본의 탄소 시장 현황을 공유함. 일본은 새로운 GX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고 배출권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개도국에 기술력과 자금을 제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이를 국가의 감축분으로 처리하는 공동크레딧메커니즘(JCM)을 시행 중임

## key takeaway 2

### 자발적 탄소 시장의 활성화 방안

-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자발적 탄소 시장과 규제적 탄소 시장의 경계가 모호함을 설명함. 시장 관련 룰북의 세부 내용이 준비되지 않았으나, 시장을 진행하며 룰을 만들어야 함. 자발적 탄소 시장 플랫폼인 기후변화센터의 아오라를 소개함
-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원장은 대한상의 VCM 인증센터에 대해 설명함. 기업이 필요로 하는 민간 주도 VCM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고 VCM 인증센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 오덕교 한국ESG 기준원 선임위원은 자발적 탄소시장을 ESG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함. 순배출량으로 계산할 수 있고 산림청 레드플러스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중임. 녹색 분류체계를 VCM에서 활용할 수 있음

## key takeaway 3

###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

- 이용권 산림청 과장은 산림청의 탄소상쇄 제도와 레드플러스 사업을 소개함. 탄소상쇄 제도와 레드플러스 사업은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해 확장할 수 있음
- 이동혁 하나증권 실장은 자발적 탄소 시장이 온전한 시장이 아님을 설명함. 시장 참여자들이 다양하게 형성되지 못했고 표준화가 진행되지 않음. 하나증권을 포함한 금융권은 탄소 시장에 대한 투자 활동을 이어나갈 것임
- 신용녀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기술임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을 보여줌. 마이크로소프트의 탄소 감축 원칙을 설명함. 정량적 수치, 책임, 새로운 기술 투자, 투명성, 기업 활용, 직원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함



**휴 살웨이 골드 스탠다드 마켓 총괄**  
Carbon Markets: Now, Next Year and to Net Zero

자발적 탄소 시장을 세 가지 관점에서 소개함

**(1) 발전:** 모든 시장은 발전함. 자발적 탄소 시장은 전환 단계에 있음. 4년 전에는 시장이 작아서 투자가 적고 투명성이 부족했음. 현재는 거래소, 투자, 플랫폼, 신용평가기관이 생겨남. 어려움과 기회가 존재하지만, 기회가 더 큼. 파리협약과 같은 국제적 관행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발전하고 있음. 시장 내 무결성 위원회가 있음. 인증, 감독, 관리, 방법론 적합성 판단을 통해 탄소 크레딧의 품질을 판단함. 거래와 관련해 국제적 표준, 규범, 인증과 같은 표준은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제공함

**(2) 임팩트:** 무형 자산인 카본 크레딧의 리포팅이 중요함. 베라(Verra)와 골드스탠다드(GS)는 카본 시장에서 크레딧을 부여하는 기관임. 카본 크레딧은 무형 자산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됨. 퀄리티, 금전적 가치, 지속적 발전 활동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함. 이는 고용과 건강 개선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효과를 낳을 수 있음

**(3) 융복합:** 탄소시장은 자발적 시장에서 의무적 시장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음. 자발적 표준이지만 정부의 협업이 필요함.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함. 남아공, 콜롬비아, 싱가포르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면 크레딧 거래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함. 이를 한국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탄소시장은 의무적 시장과 자발적 시장을 통합하고 있으며, 의무시장과 협업하고 있음. 국제적 표준, 시장의 참가자, 개발자를 통해 탄소 시장은 더욱 확장될 것임. 탄소 시장은 넷제로를 달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베네딕트 차 싱가포르 국무총리실 국가기후변화전략그룹 국장**  
싱가포르 기후변화 대응책 및 탄소시장 활용 방안

**(자발적 시장과 의무 시장의 경계)**

교토의정서에서 파리 협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와 자발적 탄소 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짐.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당사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자발적 크레딧을 형성하는 것은 파리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뿐 아니라 국가 간 협력강화와 같은 긍정적 요인이 있음

의 협력이 필요함. 연구 기관의 경우, 역량과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연구 방법론을 적용함. 탄소 거래부터 가치 제안을 구조화한 에코 시스템은 중요 예측값을 선택하고 프로젝트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기관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함. 이는 다른 국가로 수출할 수 있을 것임

**(싱가포르의 탄소시장 활용 방안)**

싱가포르는 자발적 탄소 배출권의 중앙화 시스템을 지원함. 표준을 개발하고 카본 크레딧의 가능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싱가포르는 [자발적 탄소시장 청렴위원회\(ICVCM\)](#)를 포함해 자발적 탄소 시장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베라와 골드스탠다드와 협약을 체결함. 코시아(CORSIA,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와 같은 기술 자문 위원회에서 공동 자문을 하고 있음. 파리협약 6.4조 감독 기관에 참가함. 총리와 장관도 적극 참여해 협의 장관회의를 주재함. 시장 지원, 법적 체계 논의, 다양한 정책 개발을 이행해 국가적 목표를 개선하고자 함

**(싱가포르의 기후변화 대응)**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 배출 목표를 개선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함. 유연성을 갖고 탄소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오프셋 크레딧을 활용함. 다양한 국가 및 30개의 회사와 협력하고 있음. 관련된 모든 거래와 협력 내용이 투명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참여자들이 탄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함. 시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과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음. 국제 배출권거래 협회(IETA)를 지원하고 GCC와 협력하고 있음. 이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고 NGO와



**켄타로 타카하시 일본 글로벌 환경 전략 연구소 부국장**  
일본 탄소 시장 현황 공유 : JCM, GX-League, J-Credit을 중심으로

**(GX-League)**

탄소 시장은 현재 의무적 시장이자 자발적 시장의 두 성격을 다 갖고 있음. 2010년 출범한 GX-ETS와 2011년 출범한 사이타마 교토 거래 시스템은 유사함. 올해 4월 이후 경제 산업부에서 GX를 신설할 것임. 이는 자발적 시장 거래소가 될 것이고 차차 의무 시장의 성격을 지닐 것임. 이러한 의무 시장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억 톤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일본 내 GX라는 새로운 거래 시스템이 도입되고 그린 전환이 시작될 것임. 기업들이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 시장에 참가할 기회를 증가하도록 해야 함

의 감축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임. 일본은 기술, 금융, 재정을 지원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파트너 국가에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함. 민간은 크레딧 획득 시 자사의 배출 감축을 도모할 수 있음. 현재 200개 이상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2천만 톤을 감축할 수 있음. 향후 프로젝트의 개수와 규모를 확대해 100만 톤을 감축할 것임.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폐기물 관리, 운송 등 프로젝트를 진행함

**(탄소 배출권 퀄리티)**

일본의 민간 부문은 탄소 크레딧을 활용하고 싶어 하기에 탄소 크레딧과 탄소 배출권의 퀄리티에 관심이 있음. 현재 민간 부문에서 배출권 퀄리티에 대한 걱정으로 탄소 크레딧 거래를 못하고 있기에, 일본은 ICVCM, VCMI, 무결성 위원회에 지침을 업데이트하도록 주시하고 있음

**(파리 협약 달성과 파트너십)**

파리 협약 6.2조와 6.4조 이행을 위해 노력함. 일본 정부는 탄소 크레딧을 통해 NDC를 달성하고자 함. 일본은 파리 협약 6.2조와 6.4조 이행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함.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등 여러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고 25개 국가와 파트너십을 체결함. 작년 8개의 신규 파트너 국가가 있었으며, 2025년까지 30여 개 파트너 국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교육, 역량 구축, 기술 지원 등 파트너십을 통해 강화할 것임

**(JCM)**

JCM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기술력과 자금을 제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국가

Q.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어떻게 끌어 내는지 궁금하다

켄타로 타카하시 일본 글로벌 환경 전략 연구소 부국장  
파리협정 6조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 같은 경우,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의해야 함. 파트너 국가마다 리포팅, 프로세스 관련해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함. 다양한 관점을 교환해 공동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파트너십의 목표임. JCM 양자 크레딧 제도가 그러함. 이를 통해 실질적 이행과 관행을 만들 수 있음

Q. 자발적 시장이 활성화되고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공급자와 바이어들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켄타로 타카하시 일본 글로벌 환경 전략 연구소 부국장  
시장이 아직 크지 않음. 성장 중이며 앞으로 성장해야 함.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방법론을 만들어내고 등록소가 여러 거래소와 연계하도록 해야 함.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해 여러 파트너와 공유하고 표준을 사용하도록 해야 함. 프로젝트에 계속해 투자해야 함. 골드 스탠다드는 프로젝트를 금융 지원해 활성화를 독려함.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무결성 문제가 있음. 크레딧 구매자는 책임감 있는 거래와 신뢰할 수 있는 프레임이 필요함. 구매할 때 기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키셔 라한사 Global Carbon Council 최고운영책임자**

키셔 라한사는 GCC의 탄소 시장 관련 경험을 소개하고 방위협정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시함.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인 GCC는 배출 상쇄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배출 권에 대한 높은 기준을 확립함. 항공 분야와 같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이 탄소 감축을 위해 탄소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음. 많은 탄소 크레딧이 생성될 것이고 이를 재활용 프로젝트 자금 조달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GCC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 발전을 선택함. 폐기물과 관련해 바이오디젤과 바이오가스는 탄소를 포획할 수 있는 에너지로서 관심받고 있음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자발적 탄소시장)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줄여야 할 감축량이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과 기술이 필요함. 그 자원과 기술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자발적 탄소시장이 관심을 받아야 함. (1) 과거 자발적 시장과 규제적 시장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음. 하지만 해외 정부와 UNFCCC의 움직임을 볼 때, 자발적 시장과 규제적 시장의 경계는 모호함. (2)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함은 인지했으나 룰북의 세부 내용이 준비되지 않음. 하지만 이행하며 룰을 만들어 나가야 함. 해외 마케터와 VCA 마케터 플레이어는 이 룰을 직접 만들어가고 있음. 다른 국가처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을 지키고 NDC 달성을 위해 시장을 활용해야 함. 국내에 맞는 룰을 마련해야 함

\*NDC: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기후변화센터 아오라) 기후변화센터에서 아오라(AORA)를 오픈함. 아오라는 자발적 탄소 시장 플랫폼으로 NGO의 역할에서 무결성 이슈와 그린워싱 이슈를 다룸. 어떤 크레딧이 좋은지, 거래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확인하고 국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함. (1) 이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기업의 참여 동기가 부족함을 느낌. 해외 동향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국내의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켜야 함. (2) 아오라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 위탁개발(CDO)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며 개도국 입장의 기업을 경험해 봄.

플랫폼을 운영하며 기업의 요구와 그린워싱이나 무결성 이슈에 빠질 수 있는 요소를 직접 확인함. 운영을 위한 제도적 정책 제언과 실행을 통한 경험치를 정부와 협력해 자발적 시장이 규제 시장과 합쳐지고 국내 NDC를 달성하는데 중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임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원장**

(대한상의 VCM과 인증센터) 전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향하고 있고, 이는 기업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침. 환경과 탄소 문제는 환경단체에서 경제단체까지 중요한 사항이 됨. 기업이 탄소를 절감하는 일은 어려움. 공정의 효율 개선, 친환경 연료 전환 등을 통한 직접 감축과 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간접 감축을 활용해도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이 어렵기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자발적 탄소시장(VCM)에 주목하게 됨. 자발적 탄소시장은 탄소 크레딧을 확보하고 탄소 중립 달성, 협력업체의 감축 실적 관리, ESG 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될 것임. 대한상공회의소는 관련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탄소 감축 인증센터를 열었음

(기업의 요구사항) 기업은 민간 주도 VCM에서 구심점 역할이 필요함. 구심점 역할과 함께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대한 기대가 있음. 기업은 VCM 크레딧에 대한 철저한 측정 보고 및 검증, 신뢰성과 인증 절차의 구별성, 즉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가 있음. VCM에서 발급하는 크레딧의 신뢰성이 중요 이슈임. 대한상공회의소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을 통해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고민 중임. 글로벌 기관과의 네트워크와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VCM 인증센터의 신뢰성을 더욱 확보할 것임

(대한상의 지향 방향)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 국내 기업의 67% 이상이 자발적 시장이 탄소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 답변함. 탄소 감축 인증을 통해 넷제로를 선언한 기업들은 기업이 소유한 탄소 감축 사업의 신뢰성 있는 인증을 받을 수 있음. 탄소 감축을 새로운 사업 모델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그들의 기술이 탄소 감축을 위한 활동임을 인증받고 투자받을 기회가 될 것임. 또한 크레딧 발급을 통해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유도하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임

#### 오덕교 한국ESG 기준원 선임위원

(VCM 유의점) 탄소 중립을 위해 기업은 먼저 배출량을 최대한으로 단축해야 함. 배출량 감축을 탄소 크레딧으로 대체하는 게 주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됨. 배출량을 감축한 후에 탄소 크레딧을 사용해야 함. VCM은 참여 기업에 전환 계획을 기본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함.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은 최소한 배출과 감축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임. VCM의 신뢰성의 문제에 대해 프로젝트 개발을 강화해야 함

(ESG 평가에 반영) 자발적 탄소시장을 ESG 평가에 반영할 방안을 설명함. (1) 2021년 8월 ESG 기준을 개정할 때 탄소 흡수 프로젝트의 참여를 독려하는 사항을 넣음. 향후 탄소 흡수, 카본 크레딧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현재 배출량을 총배출량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를 순 배출량으로 고치기 위해 추이를 보고 있음. 당장 평가에 반영하면 전체적 점수가 낮아질 우려가 있기에 추이를 보며 결정하고자 함. (2) 한국ESG 기준원은 산림청 레드플러스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사업과 관련해 용역을 추진함. 기업이 레드플러스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할 방법을 고민함. 탄소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시 평가 과정에서 친환경 투자활동,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평가할 때 인정받을 수 있음. 프로젝트 참여는 일종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반영 시기는 기업의 추이를 살펴보고 결정할 것임

(VCM 활용 방안) 환경부에서 작년 12월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함. 녹색분류체계를 VCM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임. 분류체계에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존재함. 일부는 온실가스 검증 기관에서의 검증을 의무화함. 검증 결과를 VCM 거래 시 활용하면, 분류체계 활용을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임. 현재 국가 단위 탄소 감축 활동을 산정 시, 제외되는 부분이 많음. 설비를 갖춰 VCM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신용녀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기술임원

(마이크로소프트의 탄소 감축)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함. 데이터 센터 운영이 필수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와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진행 중임. 마이크로소프트는 2020년 탄소 배출을 10톤 줄여, 전년 대비 1%를 감소함. 쓰레기 감축, 펀드 조성 등 정량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고 카본 네거티브를 위해 노력 중임. 회사 내에서 각 부서의 탄소 감축 활동을 관측해 평가하고 있음. 탄소 포집 기술과 관련해 투자하며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활동을 지속함. 종 다양성과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노력 중임. 이러한 활동을 보고서로 공개하고 있음

(마이크로소프트의 원칙) 마이크로소프트는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다음의 원칙에 기반함. (1) 활동의 정량적 수치를 명확히 제시함 (2) 책임을 갖고 진행함 (3) 새로운 솔루션과 기술에 지속해 투자함 (4) 새로운 솔루션과 함께 투명성을 보장함(보고서 작성 및 공유) (5) 마이크로소프트를 기후 관련 정책 이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 (6)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함. 이는 단순히 개인과 한 회사의 일이 아님을 인지하고 정부, 산업체, 국가의 여러 기구가 함께 활동을 진행해야 함에 공감하도록 촉구함



**이용권 산림청 과장**

(산림청 탄소 상쇄 제도) 산림청은 나무를 심는 활동, 식생을 복구하고 산림을 건전하게 경영,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활동, 목재품을 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등을 통해 산림 탄소 상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임. 이러한 활동은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나눌 수 있고, 거래형은 규제 시장에서 외부 사업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탄소 상쇄 제도임. 2022년 기준, 누적 550개의 사업들이 존재함. 현재 흡수량은 약 1800만톤임. 산림 탄소 상쇄 제도의 확장을 위해 제27차 당사국 총회에서 베라와 함께 탄소 상쇄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협약을 체결함

(레드플러스 사업) 레드플러스 사업은 2012년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로 시범 사업을 확장함. 캄보디아 사업은 VCS(Verified Carbon Standard)에 등록해 65만 톤의 배출권을 발행함. 80% 가까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판매함. 이와 함께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성과를 거둠. 미얀마와 라오스도 연내 VCS를 등록해 배출권을 발행할 것임. 1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NDC 달성에 활용하고, 라오스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임

\*VCS: 베라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발적 탄소 크레딧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은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표준화해 시장에 공급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 플레이어들의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임. 정부는 G2C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진출을 보장하고, 정부 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산림청의향후목표) 산림청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입법과정 중에 있음.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연내에 제정할 것임. 이 법률은 레드플러스의 기술표준과 금융까지 기업들이 확장성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산림청은 레드플러스 상품이 시장에서 잘 활용되고 정부의 NDC 달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이동혁 하나증권 실장**

(자발적 탄소시장) 자발적 탄소시장을 온전한 시장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시장 참여자들이 다양하게 형성되지 못했고 대부분의 거래가 장외에서 이뤄짐. 장외에서 이뤄지는 거래의 가장 큰 리스크는 계약서임. 장외 계약은 계약서에 모든 사항을 포함해 다루기에 중요한데, 엄밀한 표준화가 진행되지 못함. 그만큼 위험성이 있음. 리서치 기관과 투자자, 투자 펌마다 다른 요소가 있기에 표준화 시장으로 보기 어려움

(증권회사의 역할) 하나증권은 탄소 시장과 관련해 규제 시장에서 마켓 메이킹 역할을 하고 있으며 초기 사업에 리스크를 안고 자기 자본을 활용해 투자함. 초기 사업을 통해 발급된 크레딧을 판매함. 금융기관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임. 탄소 크레딧은 탄소 배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님. 탄소 시장의 이상적인 모습은 자발적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0이 되는 것임. 더 이상 감축할 탄소가 없어야 함. 금융권은 그러한 시장으로 가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함. 자발적 대출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지속해서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결성과 신뢰도를 회복해야 함. 금융권은 탄소 시장에 대한 투자 활동을 이어 나가고자 노력할 것임